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더불어 사는 성도, 함께하는 공동체
- ◎ **당회:** 5월 정기 당회가 계수실에서 있습니다(2시 50분).
- ◎ **연합 축제:** 선교 바지회와 함께한 가을 운동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여하여 주신 성도들, 수고하신 선교회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 ◎ **선교학교:**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주 교육은 각 부서별 훈련과 준비입니다. 오후 7시(금) 장소: Chapel실 (기도: 김철재 집사)
- ◎ **교육:** 시티 카운슬에서 주관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 만드는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주방 옆 교실).
- ◎ **알림:** 성전 건물 구입을 위한 계약은 성사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협조:** 8월 말 찬양제 참여를 위해 찬양대 객원 대원을 모집합니다.
- ◎ **후원:** 바누아투 삼마교회 학생들을 장학 후원하는 성도들은 3년차 후원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 오늘 점심식사로 섬겨주신 태국 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6월 새벽기도회 본문

- 13일: 사무엘하 20:14~26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거하라
- 20일: 사무엘하 23:13~39 충성된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 가는 하나님 나라
- 27일: 말라기 2:17~3:6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십니다

해외 선교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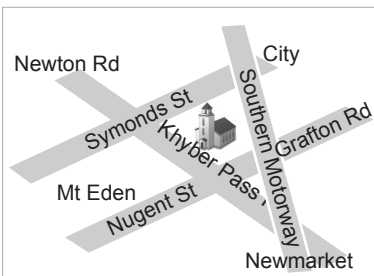
국내 봉사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온라인 선교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6월 8일 주일

16권 22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일본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이며 현대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신입 사원 면접 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복이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우수한 인재라 할지라도 복이 없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신은 복이 많은 인생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전원 채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는 상식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사람보다 스스로 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 선호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주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반드시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인재로 성장한다는 것이 인사 관리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복 그 자체입니다. 어느새 한해의 절반에 가까운 6월의 길목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발자욱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왔고 또한 남은 세월들을 그렇게 살아 갈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에게 눈물 지을 일도, 한숨 쉴 억울함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울어야 했던 일, 넘어져야 했던 아픔, 서러웠던 분함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내 욕심이 울게 했고 내 교만이 분하게 만든 것임을 압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그래도 이만큼 나를 세우고, 지켜오고 있음은 우리가 복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은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은 복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 온다면 무엇 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 이태한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 전 주
- 예배로 부름
- 개 회 송
- 참회의 기도
- ※ 찬 송
- ※ 성 시 교 독
- ※ 신 앙 고 백
- 찬 송
- 대 표 기 도
- 성 경 봉 독
- 찬양대 찬양
- 설 교
- 찬 송
- 헌 금 기 도
- 교 회 소 식
- ※ 응 답 송
- ※ 축 도

반주자
 이사야 55:1-2
 찬양대
 다함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46. 시편 104편
 사도신경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현석호 장로
 사도행전 23:26-35
 나무십자가 찬양대
그리스도의 편지/이태한목사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인도자
 인도자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 찬 양
- 기 도
- 성 경
- 설 교
- 합 심 기 도
- 광 고
- 찬 송
-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정옥자 권사
 요나서 3:7-10
회개와 은혜 베푸심/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김승훈 간사

◎ 6월 교회약기

연합축제: 6월 2일(월요일)
 공동체주간 수요예배: 6월 4일(수요일)
 성찬주일: 6월 22일(주일)
 향존직분자 기도회: 6월 29일(주일)
 단기선교: 6월 30일(월) - 7월 7일(월)

◎ 6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민광호/석경숙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최희숙 집사
 다음 주일: 정덕수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6월 18일 수요: 정옥자 권사
 6월 18일 애찬: 한누리 집사
 6월 22일 주일: 고성일 장로
 6월 22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시대를 분변하는 영안이 열려 삶속에 믿음을 잘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자식 잃은 슬픔과 아픔을 이용하여 사회와 국가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틈타지 않는 한국 사회가 되도록.
4. 영육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회복과 쉼, 직장을 찾는 성도들에게 형통함이 있도록.

선교와 중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위해 적극적인 중보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이번 주는 방콕에서 사역하는 심재우 선교사의 소식과 기도부탁입니다).

갈보리 성도들과 목사님 건강하시지요? 태국의 정세가 어수선하지만 저희 가족은 별다른 동요 없이 잘 있습니다. 지금 태국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시는대로 군부를 통해서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계엄령의 선포가 무엇인가를 통제하고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시민들을 시위와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정부 지도자는 5월 26일 오후 7시에 지금까지의 모든 시위를 끝내겠다고 선포해 놓은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가 그 즈음하여 유혈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행이 군부가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에게 각각 시위장소를 제한하여 놓았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큰 충돌이 없고, 저희 센터가 있는 지역도 시위가 있는 곳과는 떨어진 곳이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항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군인들이 저희 동네에도 몇몇씩 짝을 지어 다니는 것을 본 것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높은 만큼 조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아직 상황이 남았으니 잘 해결되도록,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이 곳에 넘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특히 제가 섬기는 기숙사 내에서도 서로 표현은 안하지만 다른 정치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평안하세요. 방콕에서 심재우 올림

기도제목

1. 조속한 시일내에 태국의 정세가 안정되어 계엄령이 해제 되도록.
2. 반정부 시위대와 친정부 시위대 사이에 만연한 불신이 사라지고 서로 신뢰하도록.